

민주당 이재종 vs 조국당 정철원...한판 승부 벌인다

4·2 담양군수 재선거 본선 대진표 완성

작년 영광·곡성 재선거 이어 야권 텃밭 경쟁 탄핵심판 결론·조국당 결집 여부 등 '변수'

오는 4월 2일로 예상되는 담양군수 재선거의 본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지난해 영광·곡성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판 승부를 벌인다.

9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재종·최화삼 예비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결선 결과를 공개하고 이 후보를 본선에 나설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선 후보 광주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후 첫 선거에 도전한 정치신인이다.

앞서 다른 후보 4명과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최화삼 예비후보와 7~8일 이틀간 2인 결선을 치렀다.

이 예비후보는 신인 가점 20%를 받아 탈당 경력으로 25% 감산을 받은 최 예비후보를 권리당원 50%·일반인 50% 지지율 합산 결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 후보는 '토박이론'을 앞세운 최화삼 경쟁 후보를 신인 가점 25%를 받으며 앞질러 경선 시기부터 지역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날 조국혁신당도 정철원 담양군의회의장에게 공천장을 수여해 재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3선 군의원을 역임한 현직 담양군 의장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가 시장을 둘러싼 상인들과 군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정철원 조국혁신당 담양군수 후보가 시장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뒤 재선거 출마를 위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에 따라 4·2 재보선 본선은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의 양자 대결이 지난해 영광·곡성 재보선과 마찬가지로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민주당과 조국당은 영광과 곡성 지역 재선거에서 치열한 텃밭 경쟁을 펼쳤다. 조국당은 지난해 재보선에서 아권의 아성(牙城)인 전남 지역에서 도전장을

내밀어 민주당을 긴장시켰다.

이번 선거에서도 조국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지역 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실행 북역으로 조국 전 대표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당내 갈등도 터져 나와 지난해만큼 바람을 불러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후 민주당의 돌풍 여부도 큰 변수다.

본선 경쟁을 앞두고 이재종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담양의 가치를 알리고,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다름을 넘어 소통하고, 갈등을 넘어 화합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철원 조국당 예비후보는 "민주당보다 앞배는 더 열심히 뛰어 경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며 "11년 동안 담양에서 의정 할

동안 자신으로 공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지만, 후보 등록일인 13일 이전에 현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실시일로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검찰 규탄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천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선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치분권 확대·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최선”

동구·남구 자치분권 정책협 안도걸 의원, 지역 정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남부·사진)은 지난 7일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각 구청장과 함께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참석해 도시재생, 복지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법·제도 개선 등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남구의 사직동·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구의 '원도심 집수리 특화사업'



광주시 동구는 최근 구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부지역위원회와 올해 첫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제시됐으며, 이를 활용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부동산교부세 지원 확대), 고흥사랑기부제 활성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동구의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확충 필요성과 남구의 '옴므호(孝)남구 복지플랫폼'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 복지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복지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 동구와 남구가 자치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광주시 도시홍보 영상, 조회수 20만 돌파

인공지능 대표도시·대자보 도시 등 도시 브랜딩 담아 'The 해피버스테이·특별한 광주' 등 영상시리즈 인기

광주시는 도시홍보 영상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시'가 공식 유튜브채널인 '빛튜브'에 지난 2월 6일 첫 게시된 이후 누적 조회수 20만 건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 도시 브랜딩을 위해 제작한 4분짜리 홍보영상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도시, 인공지능(AI) 기업과 인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복합쇼핑몰 개관 등으로 도시 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여는 도시,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통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등 일상이 빛나는 광주의 모습을 담았다.

홍보영상은 단순히 도시를 소개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 세대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짜임새 있는 구성과 차별화된 영상미를 통해 광주시민에게는 자부심을, 광주 방문객에게는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전한다.

시는 광주의 매력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주요 정책의 공감 확산 등을 위해 해마다 도시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제작된 영상은 국내외 행사, 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에서 버스 타고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The 해피버스테이' 영상 시리즈와 광주의 숨겨진 매력을 담은 'The 특별한 광주' 영상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스포츠와 휴식이 만나는 '스포케이션 광주' 탐방 영상에서는 지난해 화제의 인물 '빠기빠기' 이주는 처어리더가 대표적인 체육시설 열람체육관을 소개해(조회수 7만2000회)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1187번 버스를 타고 5·18민주광장, 전일빌딩245, K-POP 스타의 거리, 무등산원호계곡 등 주요 관광지를 홍보(조회수 9만1626회)하고, 광주 지하철로 떠나는 광주 먹거리 탐방(조회수 2만6000회), 금남55번 버스를 타고 사직공원, 양림동 등을 소개(조회수 4만6486회)하는 등 주목받고 있다.

'2025 광주방문의 해'에 맞춰 자야대교, 광주호호수생태원, 맥문동순경길, 양림동평안마을, 우일선선교사사택 등 광주 명소 곳곳을 수려한 영상으로 담은 '낭만의 도시 광주'로 초대합니다'가 조회수 10만6000여회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장승기 기자

농업용 지하수 분석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전남농기원, 올해부터 위택스 납부로 편의성 제공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전남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지하수 분석 및 양액처방 수수료를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분석 수수료는 계좌이체 방식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납세 편의 정책에 따라 위택스 내 카드 결제 시스

템이 추가되어 농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지하수 분석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전라남도의 수경재배 면적은 2023년 기준으로 748ha로, 전국(4351ha) 대비 17.2%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딸기와 토마토 등 과채류 재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은 수경재배 농가를 위해 원수 분석 및 양액처방 지원을 통해 연간 200건 이상의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16개 작목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액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박지원, 군 인권보호관 국회 선출 법안 발의

인권위법 개정안...인권위원 국회 탄핵 근거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의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지)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또

군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법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고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군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 장치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이를 악용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회가 통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정준호 '골재산업 육성법 도입 토론회' 열어

골재채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골재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이 주최하고, 한국골재협회(회장 박도문)와 국회 입법정책연구소(회장 윤호중 국회의원)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주제로 국회 입법정책연구소 회장인 윤호중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

회 서범수 의원 그리고 농해수위 임호선 의원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일련의 건축물 붕괴 사고를 보면 콘크리트 품질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결국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불량골재의 철저한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골재품질 기준 강화, 유통구조개선, 관련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골재는 건설공사용적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필수불가결한 기초자재로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 사고는 불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품질 문제라는 전문가 등의 지적이 계속됐다"며 "오늘 토론회가 골재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